

3천여 성결청년 모여 성결의 복음 외친다!

한성연 청년 연합수련회 오는 8월 15일 신길교회서



지난해 8월 15일 성결대학교에서 진행된 성청수련회에는 1,2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성결복음을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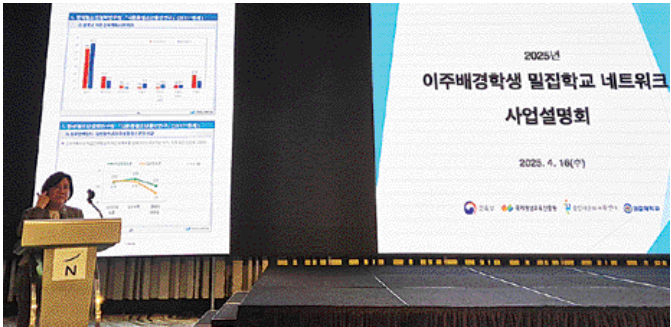
3천여 명의 성결교회 청년들이 모여 성결의 영성을 회복하고 성결의 복음을 확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홍사진 목사·이하 한성연)는 오는 8월 15일 신길교회(이기용 목사)에서 한성연 청년 연합수련회(더웨이(The Way))를 개최한다. 본 교단을 비롯한 기성 예성의 청년들 3천여 명이 모여 성결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울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여호와께 성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말씀과 찬양 등 총 네 번의 세션이 마련돼 열정적인 믿음을 도모한다. 첫번째 세션은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나서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두 번째 세션은 시티미션교회 이 구 목사가 나서서 인도한다. 세 번째 세션은 김선교 선교사가 진행하며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아이자야 쾅스티원(Isaiah

cityOne)의 공연과 찬양으로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되며 젊은 청년들의 성결선언문도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준비위원장 이 구 목사는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 반대로 청년이 살면 나라가 산다”며 “성결이 연합해 개척하는 청년집회를 통해, 다음세대가 영성을 회복하고 차세대 리더로 거듭나는 계기를 갖길 소망한다”고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밀집학교 교원연구회’ 위탁 운영

이주배경학생 문제 해결 위한 교사 주도 공동연구 착수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 다문화평화연구소(소장 남기범)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센터장 이현우)로부터 교육부 ‘2025년 밀집학교 교원연구회’ 운영을 위탁받았다. ‘밀집학교 교원연구회’는 교육부의 밀집학교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적응, 통합 등 다양

한 현장 문제를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교사 연구회이다. 이번 연구회 운영은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가 위탁받아 운영하며 총 46명의 현장 교사를 선발하고 연구소 소속 연구팀이 피셜리테이터로 참여해 6개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는 이번 사업 운영을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로부터 총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밀집학교 교사들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이슈페이퍼 등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남기범 다문화평화연구소장은 “이번 밀집학교 교원연구회는 교육부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주배경학생 지원 교사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심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는 국내외 다문화 평화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지역 사회와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회 교육국, 여름성경학교 공과 ‘약속의 나라 다시오실 예수님’ 발간

어린이용 사증복음 알기 쉽게 제작... 교사강습회도 지역별로 실시

총회 교육국은 2025년도 여름성경학교 공과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다. 사증복음에 대해 어린이들도 알기 쉽게 소개한 여름공과는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 올리는 ‘재림’(약속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제로 제작되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유치부용과 아동부용으로 나누어 출판되었으며 지도자를 위한 매뉴얼도 별도로 제작되었다. 지도자 매뉴얼은 율동 영상과 악보 등이 함께 제공되며 PDF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개교회의 성경학교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성경학교 공과를 원하는 교회는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교회들의 여름성경학교 준비가 한창인 때에 총회 교육국에서도 ‘약속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5년도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6월 14일 익산반석교회를 시작으로 6월 21일은 서울남지방회 시냇가에셀나무교회에서 6월 28일은 경기동지방회 이천사랑교회에서 각각 실시된다.

산하기관 여름 사역 준비에 ‘구슬 땀’

다양한 행사 마련 무더위 속 신앙생활 담금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산하기관들이 여름행사 준비에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 먼저 다음세대를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한 전국지방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지난 14일 전북지방회를 시작으로 개최됐다. 익산반석교회에서 개최된 강습회는 찬양, 율동과 주제해설 등으로 진행됐다.

서삼교회(전영호 목사)도 해마다 연합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고 있는 드림캠프는 7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물론, 캠프 기간 모든 경비를 서삼교회가 지원하고 있다. 농촌교회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서삼교회의 드림캠프는 해마다 캠프로 고민하던 교회에 든든한 동역자로서 아

다른 연합캠프의 모델이 되고 있다. 장년부들도 여름성회를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있다. 각 교회와 지방회 차원에서 전도대회 등을 통해 신앙 성숙을 모색하고 있다. 예성사모회와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지난달 열린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마쳤으며, 오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남전도회전국연합회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장로회전국연합회도 8월 말경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1면에 이어 총회 폐회 후에는 신학·교육·해외선교·국내선교·사회복지·부흥·평신도·홍보출판·문화체육·사회책임분과·이단사이비분과 등 각 분과위원회로 모여 조직과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사회복지분과에서는 그동안 개최해오던 사회복지정책 포럼을 11~12월 중 개최키로하고 9월에 2차 모임을 갖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내선교분과에서는 북한내 82개 성

결교회 재건을 위한 기성의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키로 하였다. 문화체육분과도 해마다 개최해오던 한성연 연합 축구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홍사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왕준복 장로의 기도, 이기용 목사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이날 설교한 기성 총회장 안성우 목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온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랑이 거룩한 삶

으로 인도하는 것이 곧 성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결의 이름으로 세 교파가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큰 힘과 의지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성결을 추구하는 한성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결대학교 정희석 총장의 환영사, 나성 감독 최형영 목사, 직전 총회장 김만수 목사의 축사 및 격려사 후 각 교단별 소개 및 인사로 한성연의 연합을 함께 다졌다.

원로목사 추대 및 원로·공로장로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

| 초대의 글 |

샬롬!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양지방회 소속 좋은이웃교회에서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 원로목사 추대 및 공로·원로장로 추대 및 2대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뜻 깊은 자리에 발걸음 해주셔서 격려와 축복으로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5. 7. 6. (주일) 오후 2시

장소 좋은이웃교회 3층 본당

※ 이 광고로 초대장을 대신합니다.

원로목사 추대

담임목사 위임

원로장로 추대

공로장로 추대



김윤석 목사



서민기 목사



김철수 장로



박래경 장로



백남주 장로



송후석 장로



2025 믿음의 한 걸음, 부흥의 큰 도약

좋은이웃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8
Tel. 031-446-9182